

EPL '코로나 공포'

지난주 확진자 42명으로 주간 최다... 토트넘-브라이턴 전 등 연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지난주 코로나19 확진자가 42명 나왔다. 영국 BBC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이는 EPL에서 올해 1월 40명을 넘어서는 1주일 기간 최다 확진자 발생 기록"이라고 전했다. 이는 선수와 스태프 등 리그에서 나온 확진자 수를 모두 더한 결과다. 2021-2022시즌 들어서는 1주일 기간 최다 발생 기록이 8월의 16건이었는데, 6일부터 12일 사이에 두 배가 훨씬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 직전 주간인 11월 29일부터 12월 5일 사이 검사에서는 12건의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손흥민(29)의 소속팀 토트넘을 비롯해 맨체

터 유나이티드, 레스터시티, 애스턴 빌라, 노리치 시티,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주 열릴 예정이던 토트넘과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의 경기는 열리지 못했고, 15일 맨유와 브렌트퍼드의 경기도 연기됐다. 맨유는 15일 오전 4시 30분부터 브렌트퍼드 원정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는데, EPL은 의료 자문단의 제안에 따라 연기를 결정했다며 일정을 재조정해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맨유 구단은 양성 판정을 받은 인원을 격리 조치했고, 추가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1군 선수단 훈련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EPL 사무국은 경기장 내 관중석 거리두기와 팬들의 마스크 착용을 다시 시행할 예정이다. 잉글랜드에서는 15일부터 1만명 이상 모이는 스포츠 행사에 입장하려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 증명서나 음성 검사 확인서를 내야 한다. 손흥민도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영국 현지 보도가 나왔고, 맨유 훈련 시설을 24시간 폐쇄하기도 했다. 2부 리그인 리그 챔피언십의 퀸스파크 레인저스와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경기는 퀸스파크 레인저스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취소됐다. /연합뉴스



2024 파리올림픽 센강 개회식 개념도.

〈2024 파리올림픽 공식 트위터 캡처〉

2024 파리올림픽 개회식 센강서 열린다

사상 첫 야외무대에서 개최

100년 만에 하계올림픽을 다시 개최하는 프랑스 파리가 파격적인 개회식을 준비한다. 영국 BBC는 14일(한국시간) 2024 파리올림픽 개회식이 파리를 관통하는 센강에서 펼쳐진다고 보도했다. 파리는 개회식 장소로 폐쇄적인 스타디움이 아닌 개방적인 센강을 선택해 경계를 없앴다. 하계올림픽 역사상 개회식이 스타디움이 아닌 야외 넓은 공간에서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BBC는 전했다.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개회식을 일반인 누

구나 접근해서 즐길 수 있는 축제와 같은 콘셉트로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토니 에스탕게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 조직 위원장은 "올림픽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접근이 쉬운 개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센강 주변에서 60만명 이상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각국 선수단이 160개 이상의 보트를 타고 센강을 따라 입장하는 장관이 펼쳐질 예정이다. 에스탕게 조직위원장은 "우리는 사람들이 느끼길 원한다. 보트는 파리의 상징적인 랜드마크인 노트르담 대성당, 오르세 미술관, 루브르 박물관, 풍네프 다리, 알렉상드르 3세 다리, 그랑팔레, 에

펠팜을 지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회식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최초의 올림픽이 될 것"이라며 "그리고 스타디움에서 개회식을 하지 않는 것도 처음이다. 인기 있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조직위는 센강 하류 쪽만 티켓을 소지한 관객에만 입장을 허용하고, 나머지 구역은 자유롭게 개방할 계획이다. 센강 주변에 80개의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관람을 도울 예정이다. 폐회식은 에펠탑이 내려다보이는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진행한다고 BBC는 전했다. 2024 파리올림픽은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유동주, 세계역도선수권 89kg급 합계 우승

유동주(28·진안군청)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2021 세계역도선수권 남자 89kg급 챔피언에 올랐다. 유동주는 13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2021 세계역도선수권대회 남자 89kg급 A그룹 경기에서 인상 167kg, 용상 204kg, 합계 371kg을 들었다. 인상과 용상 모두 3위였지만, 가장 중요한 합계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이날 유동주는 인상 1~3차 시기에 160kg, 165kg, 167kg을 차례대로 성공했다.

인상 1위는 175kg을 든 안드라니 카라페트얀(아르메니아)이 차지했다. 그러나 카라페트얀은 용상에서 1~3차 시기를 모두 실패해 실격했다. 레바스 다비타제(조지아)는 171kg을 들어 인상 2위에 올랐다. 용상에서 유동주는 1차 200kg, 2차 204kg에 성공했다. 208kg을 신청한 3차 시기에 바벨을 놓쳤다. 205kg을 든 아르템 오를로프(러시아역도연맹·러시아 도핑 제제로 중립국 신분으로 출전)와 사

르바벵 자파르조노프(우즈베키스탄)가 용상 1, 2위에 올랐고 유동주는 이 부문 3위를 했다. 그러나 경기 뒤 가장 크게 환호한 선수는 유동주였다. 자파르조노프도 유동주와 같은 합계 371kg(인상 166kg·용상 205kg)을 들었지만 '먼저 기록을 달성한 선수에게 우선 순위를 준다'는 규정에 따라 유동주가 합계 우승을 차지했다. 유동주는 용상 2차 시기에 합계 371kg을 완성했고, 자파르조노프는 용상 3차 시기에 합계 371kg을 채웠다. 유동주는 개인 4번째로 출전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마침내 시상대에 올랐다. 그의 자리는 가장 높은 곳이었다. /연합뉴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3일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2021 광주시 장애인체육가족 송년행사'를 열고 우수선수, 지도자 등을 표창하고 격려했다. <광주시장애인 체육회 제공>

광주 빛낸 장애인체육인들 송년행사

도쿄패럴림픽 4관왕 김근수 등 8명 체육진흥상 수상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3일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2021 광주시 장애인체육가족 송년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 체육발전에 기여하고 장애인체육인들의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광주장애인체육회 선수들은 올해 두드러진 활약을 펼쳤다. 도쿄 패럴림픽에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고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도 역대 최고점수로 종합 7위를 달성했다. 이같은 성과를 일궈낸 선수들이 시상식의 주인공이 됐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한국신기록 2개를 수립하며 4관왕에 오른 김근수(사격), 장애인 배구 종합 3위 달성에 기여한 최성우 감독 등 8명이 체육진흥상(전문체육 부문)을 수상했다. 조미경(광주북구장애인체육회)지도자 등 7명은 장애 당사자로서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에 모범을 보여 생활체육 부문상을 받았다. 한해 동안 장애인체육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언론, 자원봉사, 모범 직원 등 모두 5개 부문 36명이 수상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당구 천재' 김예은 LPBA 두번째 정상

'당구 천재' 김예은(22·웰컴저축은행)이 여자 프로당구(LPBA)에서 두 번째 정상에 올랐다. 김예은은 13일 경기도 고양시 빛마루방송센터에서 열린 '크라운해태 PBA-LPBA 챔피언십' 여자부 결승에서 윤경남을 세트 스코어 4-1(10-11 11-6 11-7 11-8 11-9)로 꺾고 개인 통산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지난 시즌 개막전인 SK렌터카 챔피언십 우승 이후 1년 5개월 만에 다시 한번 정상에 올랐다. 김예은은 첫 우승 당시 남녀 통틀어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다. 당시 21세 7개월로 남자부 신정주(신한금융투자)의 24세보다 월등히 앞섰다. 이후 슬럼프에 빠졌지만, 이번 대회에서 다시 정상에 오르며 역대 최연소 우승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입증했다. 김예은은 우승상금 2천만원과 함께 랭킹포인트 2만점을 획득, 시즌 랭킹 27위에서 4위로 경증 뒤편어 올랐다. 김예은은 1세트를 내렸으나 2세트를 따내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8이닝까지 4-6으로 열세였던 김예은은 9이닝에서 하이런 5득점으로 9-6으로 역전한 이후 11이닝에서 남은 2득점을 채워 11-6으로 승리했다. 3세트 역시 윤경남이 1이닝 첫 득점을 시작으로 3이닝 3득점, 5이닝 3득점으로 7-2로 빠르게 앞섰다. 하지만 6이닝부터 윤경남이 여섯 이닝 동안 공타로 돌아선 사이, 김예은이 차분히 추격하기 시작했다. 11이닝에서 4득점으로 9-7로 역전했고, 12이닝



우승 세리머니하는 김예은. /연합뉴스

에서 남은 2점을 추가해 11-7로 세트를 따냈다. 세트 스코어 2-1로 앞선 김예은이 3세트마저 거둬가며 분위기를 잡았다. 김예은은 첫 이닝 2득점에 이어 7이닝부터 공타 없이 6득점을 쌓아 올리며 11-8로 세트 스코어 3-1 격차를 벌렸다. 5세트 초구를 뱅크샷을 포함, 3득점으로 기분 좋게 출발한 김예은은 5, 6이닝에서 3득점, 11이닝에서 1득점으로 7-5로 앞섰다. 13이닝에서 하이런 4점을 뽑아내며 11-9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우승 후 김예은은 "두 번째 우승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와서 기쁘다. 내년엔 한 번 더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연습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 2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 3관 연애 빠진 로맨스
- 4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 5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 6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연애 빠진 로맨스
- 9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 7관 씨네캐슬 유제이탈자, 리스, 마이 뉴욕 다이어리
- 8관 씨네캐슬 엔킨토: 마법의세계, 돈 룩업, 팬텀: 더 무지컬 라이브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2021 ACC 송년음악회
일시 : 2021.12.24.(금)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1
문의 : 062-524-5086

GAC기획공연 포커스
어린이 무용 <루돌프>
일시 : 2021.12.19.(일)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즐거움
문화산책